

☒ 동해 왕돌초 발전방향 심포지엄

왕돌초 해양정화, 어업인들 협조 필요



동해수산자원의 보고인 왕돌초에서 원활한 해양정화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난 4월 23일 경북 울진의 한화콘도 세미나실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와 경상북도 울진군이 주최하고 한국어항협회가 후원한 “동해 왕돌초 발전방향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 발표자로 나선 한국어항협회 황승택 사무국장은 ‘왕돌초 해역 정화산업 현황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작업구역 내 어민들이 포설된 어구와 표시가 불량해 유실된 어구 여부가 판독하기 어려운 어구로 인해 정화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침체어망의 발생원인이 짧은 기간, 좁은 어장에 많은 어선이 대량어구를 집중적으로 부설하여 어망간 영김이 발생한다고 하고 어업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정환 울진군 자망협회 어업인은 “울진군에서 대게 자망 어구

실명제를 올해 시범 실시하고 있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으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철 동해수산연구소 연구관은 “최근 수중조사에서 확인된 페어망과 페그물류는 모두 어민들이 사용하는 삼중자망과 통발이었다고 하고 이와같은 페어구류의 침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분해성 어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우현 울진군 수산과장은 “현재 왕돌초 수역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대게포획 금지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대게 자망어업의 어구 실명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왕돌초 주변해역의 자원 조성을 위해 참돔, 감성돔, 조피볼락 등의 어류 종묘 방류사업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또 “스쿠버 등 해양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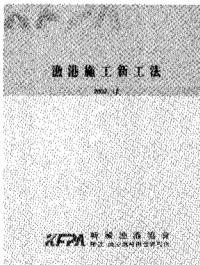
개발을 통해 ‘왕돌초 해양종합 테마관광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해수산연구소 박승윤 자원환경팀장은 “현재 왕돌초 해역은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분실어구 및 폐어구로 인한 어족자원 생산성이 저하가 심각하며, 무분별한 낚시, 스쿠버 다이빙 등으로 자연경관 및 수산자원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다목장화 사업과 연계한 관광형 수산과학 종합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수당자연연구소 한상복 박사가 ‘수로지에 나타난 왕돌초 인식의 역사’, 동해수산연구소 정창수 연구관이 ‘왕돌초 해역 해양환경 특성’, 동해수산연구소 황선재 박사가 ‘왕돌초 해역 수산자원 현황과 특성’, 한국해양연구원 명정구 박사가 ‘왕돌초 해역 어류상’, 한국해양연구원 박흥식 박사가 ‘왕돌초 해역 암반 생물상’, 국립수산과학원 박창두 박사가 ‘왕돌초 해역 삼중자망 시험결과’를 각각 발표하였다. (어른어항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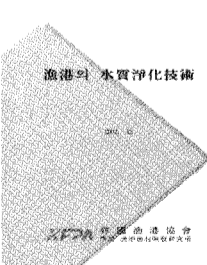
기술도서 및 홍보집 판매

어항 시공신공법



일본에서 실시된 시공 사례 PSC하이브리드 부방파제, PBS공법, CALMOS공법 등 최근에 시공실적이 증가하는 공법을 소개
분량 : 80면
가격 : 10,000원

어항의 수질정화기술



수질개선 계획수립 순서, 유동·수질·저질·생물 조사 등 수질오탁 파악을 위한 조사항목, 수질정화 기술의 분류와 향내 해수 도입공 등 소개
분량 : 154p
가격 : 15,000원

<화보> 한국의 어항(V)



5번째로 발간된 화보에는 105개 어항 중 4집까지 누락된 44개 어항 등 총 46개 어항의 항공 사진과 항세, 평면도 및 관광명소 소개
분량 : 224p
가격 : 40,000원

구입문의 : 한국어항협회 기술개발부 남광은 대리 /전화 02-3673-2856, 팩스 02-3673-2857